

### 명상의 세계화 교불련 공동포럼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이하 교불련)가 6월 28~30일 강원도 법흥사에서 권역별 중심지역대학 소속 교수들을 중심으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불교명상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문화)과 관광의 유기적 결합을 모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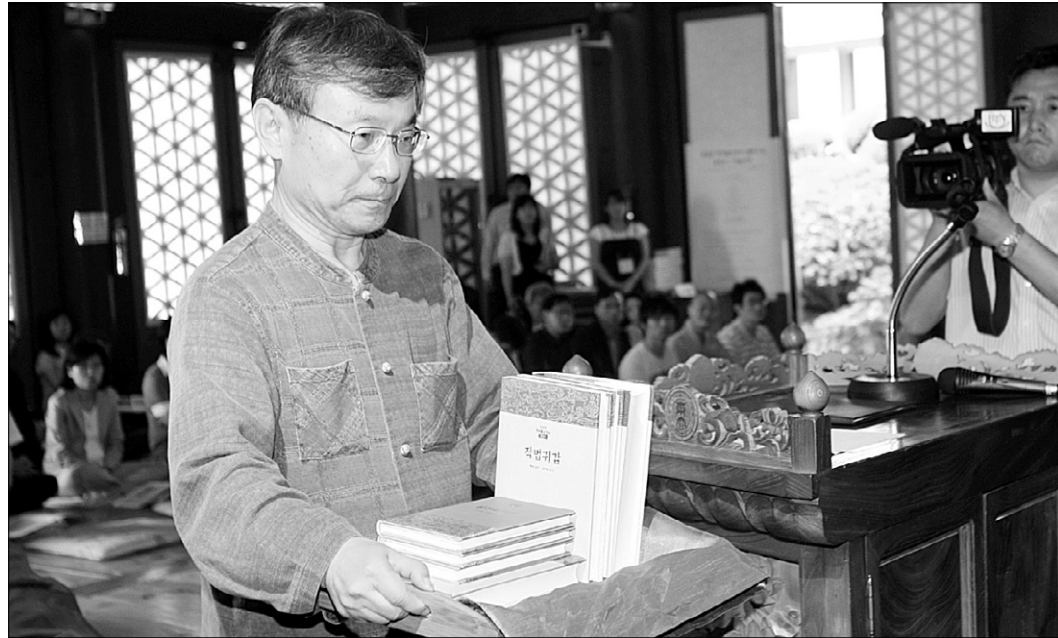
포럼은 사회학·교육 및 문화예술학·관광학·불교학적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날인 28일에는 김규철 동국대 교수가 ‘자연과 사회의 변화가 가져올 현대 불교문화의 발전 전망’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한다. 둘째 날인 29일은 △문화관광을 통한 템플 스테이의 세계화(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와 전략(신대운 조선대 교수)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와 전략(홍광표 동국대 교수) △불교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이재수 동국대 교수) △산의 전통(명법 스님) △인도 철학의 명상의 의의(김신근 동국대 교수) △선문단의 교육적 생명력(이지중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명상의 세계 윤리적 가치(김용환 충북대 교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은 김성장 원광대 교수의 건강요가, 이은부 사찰문화연구원 이사장의 ‘21C 한국불자의 가치관’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용춘 회장은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변방이 아닌, 선(禪)의 종주국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불교만의 대표적인 특색을 밝히는 자리”라며 “세계평화를 위한 이념과 방법을 모색해 세계 종교간 교류와 상호 이해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 한국불교 진수 한글화

## ‘한국불교전서’ 323편 2020년까지 완역... 1차 7권 봉정



박인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6월 1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1차 발간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7권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삼국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한국불교사상을 불교문헌으로 집대성한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가 한글로 번역돼 나온다. 한국학·국문학·국문학 등 학술연구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았던 한국불교전서가 한글로 번역됨으로써 학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전서역주사업단(단장 박인성·이하 한불전역주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한국불교전서>(이하 ‘한불전’)에 실린 323편의 불교문헌을 2020년까지 완역해 출판하기로 하고, 1차로 2010년 6월 10일 <인왕경소> <일승법계도원통기> <작법귀감> 등 7권의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를 출간했다.

한불전은 고려 대각사 의천이 집성한 <속장경(續藏經)>간행 이후 우리나라의 불교전적을 집대성한 것이다. 한불전은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1979년 첫 권을 펴낸 뒤 1989년에 전 10책을 간행했고, 이후 4책의 보유권이 나왔다.

한불전은 한문으로 된 불교전적을 발굴 조사하고, 고증을 거쳐 시대순으로 정리한 대총서(大叢書)로 일차적 학술 원천으로 국내외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중 일부만이 번역돼 한불전 전체에 대한 번역은 우리 인문학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한 한불전역주단은 2007년부터 불교화자들과 함께 문사철(文史哲)을 망라한 번역·연구자료를 다양하게 참여시켜 중의, 교감, 주석, 해제 등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번역작업을 추진해왔다. 또, 불교문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집들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운문과정을 거쳤다.

박인성 단장은 “그동안 일부 번역된 한불전으로만 한국불교가 소개됐는데 이번 한역발간을 통해 한국학·동양학·동아시아학 등 학계에 한국불교를 더욱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1차 발간되는 문헌은 <인왕경소·신라 원측> <일승법계도원통기·고려 균여> <원감국사집·고려 원각국사> <작법귀감·조선 백파공산> <정토보서·조선 백암 성총> <백암정토찬·조선 백암 성총> <일승법계도원통기> <조선 풍계 현정>이다.

<인왕경소>는 호국신앙의 근거가 됐던 대표적 경전인 <인왕경>에 대한 신라 원측 스님의 주석서로 폭군지도를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 현대인들에게도 지침서가 될 만한 자료다.

<원감국사집>은 고려 후기 국사(國師)로 활약한 총지 스님의 시문집이다. <작법귀감>은 불교의 제반의식에 필요한 의식문을 편집하여 퍼 여시켜 중의, 교감, 주석, 해제 등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번역작업을 추진해왔다. 또, 불교문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집들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운문과정을 거쳤다.

한편, 불교문화연구원(1979년 6월 1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출판기념 봉정식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는 △원측의 주석서에 나타난 경전 해석 방법의 특징(백진순 동국대 외대교수) △사기류의 편찬과 <한국불교전서>이정희 前 동국대 외대교수) △일승법계도원통기 한국 불교전서(최연식 목포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이은정 기자

# 유교와 불교 사이 세종의 선택

## 김종명 연구원 ‘불교학연구’서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 정치 분석

유교를 국시로 정한 조선시대 가운데 세종시대(1418~1450)는 유교로 전환되는 과도기였다.

특히 세종은 정치 행태에서 조선적 유교화의 틀을 정립한 군주였다. 자신이 살던 유교사회에서 스스로가 유교 군주임을 자처하던 세종은 불교의 인과설에 바탕을 둔 공덕 짓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교 사회의 백성들에게 효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가 최근 펴낸 <불교학연구> 제25호에 투고한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 정치’에서 세종의 불교관이 유교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종명 연구원은 “세종은 많은 유신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사 행위를 추진했으며, 그는 자신의 불교관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조치까지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세종실록> <월인천강지곡(月印天江之曲)> 등 세종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1435년 5월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인과설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1440년에 그는 부처를 공경할 것임을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1443년 한글을 창제하고 3년 뒤에 이를 반포했는데,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책의 대부분은 불교 관련 서적들이었다.

김 연구원은 “세종은 그의 비소 헌안후가 1446년에 세상을 떠나자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석가모니의 일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인 <석보상절>을 짓게 했다”고 말했다.

<석보상절>은 한글 창제 후 지어

진 최초의 산문 작품인 동시에 한국 최초의 한글 불전이다. 김 연구원은 “이 불전은 조선 초기의 불교를 조직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불교학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처음엔 한문으로 지어졌으나, 거기에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관련된 그림이 추가된 후, 다시 일반인들의 불교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로 다시 번역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세종은 통설과는 달리 재위 초기부터 호불적 태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종의 불교관 형성에 미친 인물은 왕실 가족, 승려 및 호불 유학자들이었다.

김종명 연구원은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은 승려가 됐으며 세종의 아들들인 수양·양평대군은 세종의 불교 신앙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해 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양대군은 “석씨의 도가 공자의 도보다 나은 것은 단지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옛 유학자들이 ‘불교에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를 높게 평가했다.

<세종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불교관은 효, 인과, 치병, 정토왕생, 악업제거, 기우 등 공덕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김 연구원은 “세종과 관련된 불전들을 살펴볼 때 세종의 불교관은 공덕 중심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이유는 세종 치세 후기의 가족사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세종은 그의 왕후와 아들들이 죽자, 정신적 안정을 위해 수양대군과 양평대군의 도움을 공중 옆에 사찰을 세웠다. 세종은 또한 그의 불사에 관한 단호한 태

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세종의 불교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은 민생해결과 소통을 통한 교화에 최선을 기울이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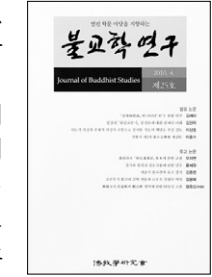
불전들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출판 또는 번역한 것이 그 예다.

또한 세종은 죽은 소헌 왕후를 위해 불경을 금자(金字)로 쓰게 하고, 불당을 짓기 위해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특히 병과 관련된 불사가 많았다. 김 연구원은 “세종 스스로와 세자의 치병을 위한 행사가 많았다. 세종은 자신이 아플 때 관리들로 하여금 불당과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게 했고 관리들로 하여금 불전의 경문과 발문을 쓰게 하며 궁궐 내에서는 채식을 하게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세종의 불사는 공공성을 띠고 있었으나 그의 불사에 대한 유신들의 저항 또한 거세었다. 김 연구원은 “자신의 불사에 대한 유신 세력들의 반대에 저항하기 위해 △세자에게 왕권을 넘기려는 시도 △거처 옮기기 △불사에 반대하는 관리 파면 등의 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명 연구원은 “세종의 불교관은 유교 사회에서 그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종의 치세 마지막까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은정 기자



## 용인대 불교미술학 ‘화불동연전’

용인대 소속 불교미술연구소(소장 이태승)는 6월 23~29일 서울 법연사 불일 미술관에서 불교미술 전시회 ‘화불동연전(畫佛同演展)’을 연다. 불교미술연구소는 용인대 불교미술 전공 개설 14주년을 맞아 학생, 교수진이 그동안 공부한 성과를 전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같이 모여 불화를 그리며 연구하는 사람들의 전시회’라는 뜻의 화불동연전에는 ‘심춘도’ 양류 관세음보살상 등 이태승 교수의 작품을 비롯해 졸업생, 재학생들이 제작한 불교 미술품 2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031)8020-2695 이은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 (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 (동양의학, 양생학, 변종) · 중탕이론 및 실습 (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 (변종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 (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http://www.kile.or.kr)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부산교육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제1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 교육생 모집

현대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직장가정사이에서 갈등하고, 조화롭게 양립해 나가기 힘든 사회적 여건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출산율 저하와 이혼, 가족체제로 인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발생하는 사회의 부정적 제반문제를 최소화 하고 건강가정의 육성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지킴을 위해 상호존중과 균형있는 역할 분담 등 미래지향적인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8시간, 가정복지 20시간, 상담학 13시간, 가족심리 치료통합 접근 20시간, 다문화 복지론 8시간, 가정폭력·성폭력상담 14시간, 상담실습 10시간 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상담 교육내용 -**

- 대상: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다문화가정 상담소 설치 희망자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 연수기간: 2010년 6월 28일 ~ 8월 10일까지 (오전 10시 30분 ~ 15시)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3층 교육장 (TEL 02)810-5075)
- 수강료: 9만원 (당일 10만원)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신청. 입금처: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한국여성성폭력연합회
- 신청기간: 2010년 6월 2일 ~ 6월 28일까지
- 문의처: 02)738-5586 / 02)735-0406
-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 합니다.

\*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주 관 : 사단법인한국여성성폭력연합회 중앙본부    후 원 : 여성가족부